

하상주보

천주교 성 정 바오로 성당
ST. PAUL CHUNG CATHOLIC CHURCH
Catholic Diocese of Arlington, Virginia

2022년 8월 21일
제1910호

주임 신부: 김태진 베네딕토

보좌신부: 이태섭 요한사도

사도 회장: 강세원 바오로

연령 회장: 홍의훈 요셉 (703 966 8206)

사무실: 703 968 3010

팩스: 703 968 3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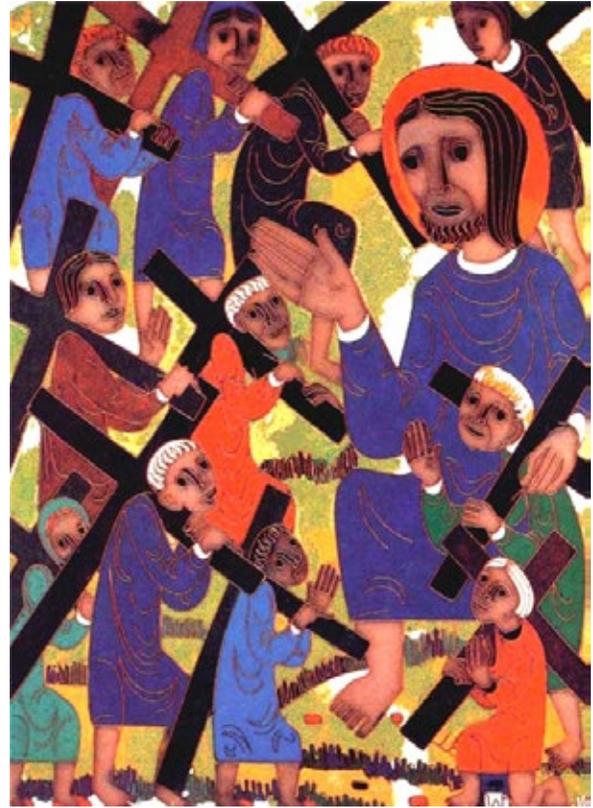
주소: 4712 Rippling Pond Drive, Fairfax, VA 22033

이메일: sthasang@gmail.com

감사와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루카 22,19)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주님, 구원받을 사람은 적습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도록 힘써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사람이 그곳으로 들어가려고 하겠지만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루카 13,23-24)



에기노 바이너트 작

연중 제21주일 (다해)

제 1 독서 이사 66,18-21 | 그들은 모든 민족들에게서 너희 동포들을 데려 오리라.

화답송 시편 117(116) | ◎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복음을 선포하여라.

제 2 독서 히브 12,5-7.11-13 |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이를 훈육하신다.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길ियो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

복음 루카 13,22-30 | 동쪽과 서쪽에서 사람들이 와 하느님 나라의 잔치상에 자리 잡을 것이다.

동쪽과 서쪽에서 사람들이 와 하느님 나라의 잔칫상에 자리 잡을 것이다

그때에²² 예수님께서서는 예루살렘으로 여행을 하시는 동안,
여러 고을과 마을을 지나며 가르치셨다.

²³ 그런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주님, 구원받을 사람은 적습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²⁴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도록 힘써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사람이 그곳으로 들어가려고 하겠지만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²⁵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닫아 버리면,

너희가 밖에 서서 ‘주님, 문을 열어 주십시오.’ 하며

문을 두드리기 시작하여도,

그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사람들인지 나는 모른다.’ 하고

대답할 것이다.

²⁶ 그러면 너희는 이렇게 말하기 시작할 것이다.

‘저희는 주님 앞에서 먹고 마셨고,

주님께서서는 저희가 사는 길거리에서 가르치셨습니다.’

²⁷ 그러나 집주인은 ‘너희가 어디에서 온 사람들인지 나는 모른다.

모두 내게서 물러가라, 불의를 일삼는 자들아!’ 하고

너희에게 말할 것이다.

²⁸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사악과 야곱과 모든 예언자가

하느님의 나라 안에 있는데

너희만 밖으로 쫓겨나 있는 것을 보게 되면,

거기에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²⁹ 그러나 동쪽과 서쪽, 북쪽과 남쪽에서 사람들이 와

하느님 나라의 잔칫상에 자리 잡을 것이다.

³⁰ 보라, 지금은 꼴찌지만 첫째가 되는 이들이 있고,

지금은 첫째지만 꼴찌가 되는 이들이 있을 것이다.”

†복음 묵상

보통 마태오 복음은 엄격하고, 루카 복음은 부드럽고 따뜻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언제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루카 복음도 엄중하고 강한 경고의 말씀을 전하는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복음에는 여간해서는 지나갈 수 없는 좁은 문이 나옵니다. 심지어 그 문은 닫힐 것이라고 합니다. 닫힌 문 앞에서 사람들이 집주인에게 문을 열어 달라고 외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주인은 그들에게 “너희가 어디에서 온 사람들인지 나는 모른다.” 라고 말합니다. 이 비유는 어떤 사람의 질문으로 시작됩니다. “주님, 구원받을 사람은 적습니까?” 예수님께서서는 이에 숫자로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오늘날 많은 유사 종교와 사이비 종교가 숫자 놀음으로 사람들을 현혹시키려 하는 것과 대조적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구원받을 사람의 수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지에 관하여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도록 부단히 애써야 한다고 하십니다.

구원받기 위한 첫째 조건은 ‘싸우는 것’입니다.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 가끔 등장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썩지 않는 화관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싸웁니다]”(1코린 9,25).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하여 우리는 애써야 합니다. 싸워야 합니다. 내면과 외면의 힘겨운 싸움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언제나 세상의 그릇된 논리와 유혹에 맞서 싸우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산다는 것은 인생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는 치열한 싸움입니다. 둘째 조건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우리는 낮아지고 작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낮춘 사람은 자신이 약하고 하느님의 자비를 호소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아무도 스스로 구원을 자신해서는 안 됩니다. 세례를 받고 교리 교육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꾸준히 미사에 참석하는 것만으로는 구원받기 어려울 것입니다. 오늘 비유 말씀을 보면, 주님 앞에서 먹고 마셨고 주님께서 자기가 사는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다는 항변에도 주인은 그들을 도무지 모른다고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복음은 복음의 정신을 잃어버리고 형식적으로 주님을 섬기며 세상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게 살면서도, 자신만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라고 낙관하는 이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자신이 고백하는 믿음과 전혀 다른 삶을 살면서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정용진 요셉 신부>

7주간의 여름 성경 특강을 마치며

- 교육부 -

7주간 여름 성경특강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날짜 : 2022년 7월 6일-8월 17일 (매주 수요일)
 □ 시간 : 오후 7시 30분 - 8시 30분
 □ 장소 : 천교실
 □ 강사 : 정인준 파트리치오 신부님
 □ 문의 : 교육부(571-275-0691)

일	날짜	주제	강사	주제
1	07/06/22	말씀의 힘	파트리치오 신부님	말씀의 힘
2	07/13/22	예수의 축복	바오로딸 콘텐초	예수의 축복
3	07/20/22	요셉의 삶	파트리치오 신부님	말씀의 아름다움
4	07/27/22	말씀의 기쁨	정인준 신부님	말씀의 기쁨
5	08/03/22	말씀의 아름다움	파트리치오 신부님	말씀의 아름다움
6	08/10/22	말씀의 기쁨	파트리치오 신부님	말씀의 기쁨
7	08/17/22	말씀의 아름다움	파트리치오 신부님	말씀의 아름다움

막막할 수 있는 성경을 인물 중심으로 살펴봄에 하느님의 드라마가 어떻게 쓰여졌는지 알아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25주년 기념
ST PAUL CHURCH CATHOLIC CHURCH

끝없는 광야를 가로질러
 하느님이 이끄시는 곳으로 길을
 떠났던 신앙의 인간 아브라함,
 하느님의 축복을 받으려고
 전 생애를 바쳐서 투쟁했던
 집념의 인간 야곱,
 이집트 탈출을 이끌었던 위대한
 영도자 모세, 요르단 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입성했던 그의
 후계자 여호수아,
 위기 때마다 기꺼이 이스라엘을
 구해냈던 판관인 삼손, 드보라
 그리고 기드온, 기름부음을 받고

첫 임금이 되었던 사울과 가장

강성했던 제국을 다스렸던 다윗, 그리고 하느님 성전을 지어 봉헌했던
 지혜의 왕 솔로몬, 뜻하지 않은 남북 분열의 역사 속에 각 왕국을 다스렸던
 영욕의 임금들, 그리고 12제자와 위대한 선교사 사도 바오로의
 위대한 한 편의 드라마는 이렇게 막을 내렸습니다.

이들의 삶이 ‘영광’ 만은 아니었음을 배웠습니다. 이들은 때론 나약한
 인간의 한계를 보여주기도 했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느님께서서는 이들에게
 자비를 내려주시고 성령의 이끌림으로 당신께 인도해 주셨습니다.

구원의 역사가 영광스러운 순간으로 나아가며 하느님 안에 이루어질 때,
 하느님은 당신의 계약 안에 머물러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증거자로서
 하느님의 초대에 “예” 라고 응답한 아브라함, 야곱, 요셉, 모세, 다윗,
 마리아, 베드로처럼, 하느님은 오늘날 우리를 똑같은 방식으로 부르시고
 계십니다. 바로 “하느님의 역사 안에서 우리 각자의 역할을 맡으라” 고
 말합니다.

다시 한번 일곱 번의 강의를 위해 먼 길을 한숨에 달려와주신
 정인준 신부님과 특강의 처음과 끝을 기획하시고 매 강의마다 함께해 주셨던
 고마우신 주임신부님과 보좌신부님,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도 시간을 내어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묵상

주님과 함께 머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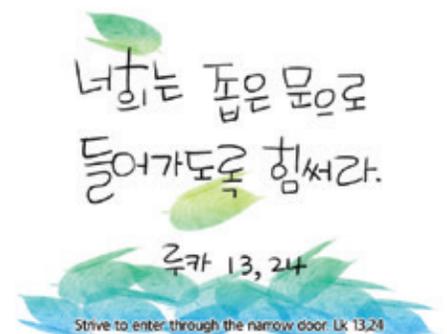
- 프란치스코 교황



<Jesus and the two disciples On the Road to Emmaus, by Duccio >

예수님은 문간에서 우리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삶의 문지방 안으로
 들일 수 있도록 ...
 이는 엠마오로 가던 사도들처럼,
 우리와 함께 묵을 것을 예수님께 청하면서
 우리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신앙의 문을 통과할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 믿음의 이유를
 이해하게 되는 지점까지
 주님이 우리를 몸소 데려다 주실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 다른 이들에게
 주님을 선포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신앙이란 주님과 함께 머물겠다는,
 주님과 함께 살겠다는,
 주님을 형제 자매와 나누겠다는 결심을
 의미합니다.

(오로지 사랑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강론 중에서



1 **안나회 월례회의**

- 일시 : 8월 21일(일) 오전 11:30 (A-1,2,3)

2 **하상회 월례회의**

- 일시 : 8월 21일(일) 오전 11:30 (B-2,3)

3 **꾸리아 월례회의**

- 일시 : 8월 21일(일) 오전 11:30 (하상관 #4,5)

4 **울뜨레아 월례모임**

- 일시 : 8월 26일(금) 7:30 미사 후(A-1,2,3)
- 꾸르실리스타분들은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5 **루카회 월례회의(60대 본당 남녀 교우)**

- 일시 : 8월 28일(일) 오전 11:30 (B-3,4)

6 **요한회 월례회의(50대 본당 남녀 교우)**

- 일시 : 8월 28일(일) 오전 11:30 (B-1,2)

7 **KoC 월례회의**

- 일시 : 8월 28일(일) 오전 11:30 (A-1)

8 **하상 성인학교 2022년 가을학기 안내**

- 일정 : 9월 13일(화) - 12월 9일(금)
- 등록 : 8월 28일(일), 9월 4일(일), 9월 11일(일) 오전 8시, 10시 미사 후 친교실
- 등록금 : \$60 (점심 없음)
- 안내서 및 신청서 : 성당 입구 주보대에 있습니다.
- 기타 세부 사항은 안내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 김명희 울리아나 교장 (703) 217-2775

9 **가톨릭 성서모임 2022년 가을학기 그룹원 모집**

- 가톨릭 성서 모임은 성서를 함께 읽고 묵상을 나누며, 하느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고 생활화할 그룹원을 모집합니다.
- 모집 대상 : 청년 (19세 - 39세) / 어버이 (40세 이상)
 - 공부 기간 : 15주 (주 1회 2시간)
 - 신청 방법 : 청년 - bit.ly/spccbln2022f
어버이 - bit.ly/cblm2022f
 - 공부 과정 : 창세기, 탈출기, 마르코, 요한, 사도행전
 - 신청 마감 : 9월 4일까지 • 등록비 : \$30
 - 문의 : 청년 대표 - 강동철(로베르토) (571) 432-9950
어버이 대표 - 신상희(글라라) (703) 399-4768

10 **하상 한국학교 교사 모집**

- 사랑과 열정으로 학생들을 가르치실 교사를 모집합니다.
- 문의 : 김정선 교감 (571)217-8941
hasangkoreanshcoolva@gmail.com

11 **주일학교 등록 안내 (K-12th)**

- 2022 - 2023 주일학교 등록을 **하상관 로비**에서 받고 있습니다.
- 신청 : **8월 21일(일) - 8월 28일(일) 2시 미사 전,후**
- 등록비 : 한 자녀 - \$100 / 한 가정 두 자녀 - \$180 / 한 가정 세 자녀 이상 \$200
- 문의 : CCD 윤정 보일 (703) 371-3589
CYO 구아름 (703) 599-8869

12 **주일학교 교리교사 모집**

- 문의 : 윤정 보일 CCD 교감 (703) 371-3589
구아름 CYO 교감 (703) 599-8869

13 **체육관 사용 안내**

- 하상관과 체육관은 **개별적 사용이 제한되며**, 체육관 사용 중 발생하는 모든 사고(개인 상해나 재산상의 손해 등)에 대해 교구, 성당, 사제, 이사회, 직원, 시합/행사/대회 관련자와 단체 등은 법적 책임이 없음에 동의해야 하며 어떠한 법적 조치나 책임을 전가하지 않는다는 서약을 해야 합니다.

14 **성 정하상 성인 성상 건립**

- 본당 후보성인인 성 정하상 바오로 성인의 성상을 Fairfax Memorial Park에 모시려 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성 정하상 성인과 더불어 천국에서 복락을 누리기를 기원하며, 후손들이 조상들의 묘지를 찾을 때 한국 성인의 모습을 볼 수 있고 구역을 상징할 수 있는 성상 건립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성상은 2점이 설치되며, '미소를 보이며 조상들을 맞이하고 계산 모습'으로 제작될 것입니다.
- 비용은 제작 및 배송, 설치비용을 포함하여 6만 5천 불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 이번 주일(8월 21일)부터 성상 건립을 위한 약정을 받습니다. 체크는 **St. Paul Chung Catholic Church** 앞으로 Memo는 **성상 건립**이라고 적어 주시고 사무실로 납부해 주시면 됩니다.
- 신자분들의 많은 협조를 바라며 특히 Fairfax Memorial Park에 조상들을 모신 분들의 관심과 기도,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15 **CARITAS WONJU 명칭 변경**

- 본당 Caritas Wonju(CARITAS WONJU INTERNATIONAL RELIEF, INC)의 명칭이 **Hasang Caritas**로 변경되었습니다.
- Hasang Caritass는 고국 복지후원, 아동결연 후원, 현지 후원, 해외 후원(필리핀, 파푸아뉴기니), 불우이웃 돕기 등의 후원사업을 합니다.
- 사랑과 기도,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적은 액수로 회원가입이 가능합니다. 회원들의 후원으로 복지사업을 하는 Hasang Caritas 사업에 신자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주말마다 친교실(오전 8시- 오후 12시)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더 많은 자료는 Caritaswonjuva.org 를 참고하세요.

16 **성모 회원 모집**

- 성모회에서 **토요일 오전 7시, 주일 오전 7시**에 봉사자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 자매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문의는 **박 소피아 성모 회장**님께 해주세요.

영산 성당 모금 현황

영산 성당 송금 현황 : \$ 251,263.50

봉헌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2022년 8월 14일(연중 제20주일)

주일 헌금	\$ 6,663.00
교무금	\$ 3,670.00
교무금(신용카드)	\$ 2,740.00
감사 헌금	\$ 2,880.00
온라인 봉헌	\$ 3,795.00
합계	\$ 19,748.00

♥ 주일헌금 및 2차 헌금의 세금공제를 원하시는 분은
세금공제 확인용 봉헌예물 봉투를 사용해 주십시오.

버지니아 성정 바오로 성당 제공
KACM TV 하이라이트

Cox Ch. 30, 830
Fios Ch. 30

- 8월 25일(목) 오후 5:00-6:00
- 8월 26일(금) 저녁 8:00-9:00
- 8월 28일(일) 오전 6:00-7:00

1. 주일 강론
2. 김대우 모세 신부의 그래서 오늘은 신비롭다 :
"이별, 그 로맨틱한 약속"



교황님의 8월 기도 지향
중소기업들

중소기업들이 경제와 사회 위기 가운데에도
사업을 이어나가며 그들이 속해 있는 공동체에
봉사하는 길을 찾도록 기도합니다.

미사 시간 안내(Mass Schedule)

주일미사	• 8:00 AM	수
	• 10:00 AM(교중미사)	
토요일 저녁 주일 미사	• 2:00 PM(학생미사)	수
	• 5:00 PM(청년미사)	
토요일 저녁 주일 미사	• 7:30 PM	수
월, 목, 토	화, 금	
• 6:00 AM	• 7:30 PM	• 11:00 AM



Find a Mass near me

여행지에서 가장 가까운 성당과
미사 시간을 찾을 수 있습니다.

www.masstimes.org